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 목 :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4: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는 뜻.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기본 교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친밀하라’임.

전철에서는 바로 곁에 살까지 닿으며 같이 앉아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결코 친밀하지는 않다. 심지어 부부로서 같이 잠자리에 들기도 하지만 친밀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 잘 모른다. 왜냐면 하나님은 주로 은밀하게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why? 은밀하신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월적 존재, 4차원적이심)

둘째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모른척 해도 결코 상처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 셋째는 조용히 기다리시는 중이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격이 매우 까다로우시기 때문이다.

엄청난 부자시면서도 가난한 자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바쁘실 거라는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매우 한가하시며(왜냐면 가장 부지런 하시므로)

싫어하시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왕창 복을 주시면서도 계산만큼은 엄청 꼼꼼하게 하신다.

씩수가 없는 자들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며, 영혼이 없는 자들은 무시하

신다.

2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출24:2)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신다.

13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민17:13)

왜 죽임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그 행동이나, 그 생각이나
말이 도에 지나치다고 판단하실 때, 보통은 방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다가올
경우 그를 죽이신다.(우리는 흔히 이를 매를 번다고 표현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가?

1.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만물에게는 만유인력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랑인력이 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간다.

-만약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생긴다.

-마치 세포에 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결핍들로 말미암아 각종
힘겨운 증상들이 발생하듯이.

-그런데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
님을 찾아가면서 가까워진다.

2.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지음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다.

-하나님의 것은 거의 무한대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접속
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무를 완성하게 된다.
-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마귀가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부추기고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비아냥거린다.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 우리는 승리하여 면류관을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 인류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
- 모든 인류는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 최후에는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다.
-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국지전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가야 한다.
-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죄란, 하나님의 진영을 떠나 마귀의 진영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래서 회개란, 마귀의 진영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진영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 다만 하나님편에서 마귀의 진영에 속해있는 자들을 더 많이 옮겨오시려고 결전을 지연하고 계심.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가?

1. 하나님을 경외하라.

14 여호와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25:14)

- 하나님의 계시는 경외함의 정도만큼 열린다.
- 경외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계시는 열린다.
- 경외하는자와 경외하지 않는자를 구별하여 대우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구별은 하시는 분. 구별하는 것이 곧 거룩함이다.

2. 하나님께 기도하라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 4:7)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55:6)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7:7)

-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 기도에는 응답이 따른다.
-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가 계속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진다.
-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행하자.
-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것은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

3. 회개하라

...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약4:8)

18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34:18)

- 손을 씻으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
- 하나님 앞에 하는 결단이 크게 효과적이다.
- 죄에서 떠날 때까지 회개를 계속하라. 회개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더 겸손해지고 경건에 힘쓰라.

4.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4:8)

-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
-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른 이에게 주지 말라.
-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예물과, 시간과, 친밀함을 다른 이에게 주지 말

라.

<찬양예배>

주제: 제목: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말씀: 다니엘 7장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끼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17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놋이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단7:1-28)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 2장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이 풀어냄.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단 2:31-33)

신상의 머리(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자신(B.C.605-539,65년)

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B.C.539-331,208년)

배와 넓적다리(놋) -그리스(알렉산더)(B.C.331-168,163년)

종아리(쇠) -로마(B.C.168-A.D.476,644년)

발(쇠+진흙) - 열국시대 - 열발가락(A.D.476~)

돌나라(하나님의 나라)

*세대주의자들의 오류;종아리와 발가락 사이를 떨어뜨려 놓아 ‘대간격설’을 주장함.

-로마제국은 부활할 것이라는 추측은 억지.

-성경은 오히려 로마가 나뉘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1 왕께서 그 밭과 밭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밭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단2:41-46)

실제로 로마는 375년부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함.

476년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완전히 열조각으로 나뉘어지고 말았다. (열국;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동고트(망), 반달(망), 헤룰리(망))

2007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리스본 조약. 유럽연합 27개국의 경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협약. (결코 정치적 연합은 아님)